불교 크리에이터를 만나다

“불교 백설공주 스토리 만들어요”

③ 장정윤 일러스트

“불교에도 엄지공주 같은 ‘연꽃공주’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꽃에서 태어나 보살로 성장하는 불교의 세계관을 듬뿍 담은 카툰을 인스타에 연재할 예정이에요.”

제1기 불교 크리에이터로 선정된 장정윤 일러스트 작가는 만화 캐릭터와 같은 개성 있고 귀여운 부처님을 선보이고 있는 이다. 장 작가의 작품은 불교미술에 대한 호기심을 일깨우기 위해 작품 곳곳에 에피소드를 불어넣은 것이 하나의 묘미다.

장 작가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불교미술의 새로운 시각을 선보였다. 이번에 불교크리에이터 공모에 출품한 ‘별세음공주 공덕연’의 공덕연 캐릭터는 장 작가가 불교일러스트를 그린 시작점의 캐릭터다.

“사실 불교크리에이터를 처음 지원했을 때는 평범한 신행일기로 하려고 했지만 저만의 개성이 담긴 참신한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문득 몇 년 간 제가 생각해온 캐릭터에 생명력을 넣어 여태껏 해보고 싶었던 동화 이야기 만들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금새 스토리가 떠올랐어요.”

장 작가의 종교는 없다. 장 작가는 불





자가 아니지만 평소 마음공부나 사색을 좋아하고 불교에서 연꽃이 주는 의미가 마음에 들어 매료됐다. 장 작가는 “대학 졸업작품 때 연꽃에 대한 작업들을 그렸었는데, 제가 불교에 많이 이끌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후 불교박람회를 관람하며 불화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 불화를 그려보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장 작가는 이후 자신만의 작화로 작품을 준비해 여러번 전시를 열게 됐고, 이후 대원상과 같은 불교관련 공모전, 방송, 외부 활동을 통해 불교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깊어졌다. 현재 장 작가는 원빈 스님과 천수경을 공부하는 BTN 〈절친3〉에 패널로 나가고 있다.

‘공덕연’이라는 캐릭터의 이름은 장 작가가 받은 법명이다.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혜안 스님과 함께한 템플스테이에서 ‘덕연’이라는 법명을 받았는데 이후 공이라는 성을 붙여 캐릭터이름이 됐다.

장 작가는 “마치 불교를 만나 성숙해져가는 모습이 조금은 제 분신이라는 생각도 든다”며 웃었다.

장 작가의 작품의 특징은 관세음보살도에는 ‘우주와 별의 소리를 듣는 별세음보살’이란 컨셉으로 모든 캐릭터가 별모양의 보관을 쓰고 있는 것이다. 컷툰의 스토리에서는 어린 공주가 보살이 되기까지, 천방지축에서 철이 들어가는 모습이 그려진다.

“서양의 동화에는 인어공주, 백설공주 등의 공주시리즈가 있는데 불교에서도 그런 동화가 하나 만들어지면 재미있지 않을까요?”

장 작가는 만화라는 분야가 전문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만화가의 꿈을 키웠고, 결국 불교와 접목한 만화까지 작품세계가 이어지고 있다. 장 작가는 향후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를 색다르게 엮어 이야기가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미와 교훈, 동심을 함께 담은 작업물을 내는 것이다.

장 작가는 “내면의 이미지와 상상력을 외부로 꺼내는 작업은 나를 발견하고 내 마음을 탐구를 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며 “불교크리에이터로서 창작을 하게 되는 동력도 수행하는 마음 덕분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불교크리에이터 선정은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불교계의 노력과 도전의 창구가 필요한 창작자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가 맞물려, 새로운 문화가 태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멈춰있던 지난 작업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 돼, 발상과 작업능력에 자극이 되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저에게는 처음으로 긴 스토리를 끌고 나가는 작업이라 몇 개월간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많은 고민이 들겠지만 한편으로는 즐거운 여정일 것 같아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생명나눔, 제11회 산사음악회

10월 5일 불암사 경내서 사부대중 3천여 명 참석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0월 5일 남양주 불암사 경내에서 ‘제11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생명나눔 운동 확산을 위한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0월 5일 남양주 불암사 경내에서 ‘생명나눔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2007년에 시작해 올해로 11회를 맞은 생명나눔 산사음악회는 생명나눔 의식을 확산시키고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활성화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일면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으로 시작됐다. 이날 수여식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 중인 학인스님 9명, 학생 7명 등 총 16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또한 만성신부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도 이뤄졌다.

생명나눔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회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생명나눔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후원공로부문에 김현업 회원이, 자원봉사부문에는 김남희 씨가 수상했다.

또한 생명나눔은 2014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장기기증 희망등록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동국대 참사람봉사단에게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어진 음악회는 BBS라디오 특별공개방송으로 진행됐으며 생명나눔 홍보대사인 이익선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다.

음악회에는 생명나눔 홍보대사 가수 박상민, 정수라 씨를 비롯해 ‘미스트롯’을 통해 이름을 알린 김양, 금잔디 씨 등이 출연했다.

또한 생명나눔 산하단체인 ‘마하무용단(단장 명선화)’은 아름다운 한국무용 춤사위를 통해 불암사의 가을밤을 풍성하게 채웠다. 신성민 기자

템플스테이 UCC 내 손으로 뽑는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라는 주제로 UCC 공모전을 실시, 1위부터 3위까지 수상작을 온라인 투표로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내가 바라본 템플스테이’ ‘내가 체험한 템플스테이’ ‘내가 체험하고 싶은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관련 자유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9월 2일부터 27일까지 작품을 접수해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총 10편의 영상이 10월 8일 템플스테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본선 작품은 해인사, 축서사 템플스테이 후기를 비롯해 청춘의 힐링, 행복찾기 여행 등을 주제로 제작됐다.

이에 10개의 영상 중 가장 인상적인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면 1표로 집계된다.

윤호섭 기자

한마음선원 15개 지원 청년 한자리에

10월 6일 안양본원서 열려
15개 지원 500여 명 참여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이 안양본원에서 전국 15개 지원 청년법우들이 모인 가운데 10월 6일 제16회 전국연합 청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청년법회에는 전국 15개 지원에서 참여한 500여 청년회원들이 동참했으며, 묘공당 대행 스님의 생전 영상법문을 시청하고 함께 선법가를 부르며 가르침을 되새겼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청년회원들의 정진이 지혜발현의 큰 힘이 된다며 청년회원들을 격려했다.

혜수 스님은 “우리의 각자 마음을 아끼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두루차고 밝은 지혜로 한마음 밝혀 정진해달라”



한마음선원 제16회 전국청년연합법회에는 전국 15개 지원에서 참여한 500여 청년회원들이 동참했다.

며 “여러분 모두가 개개인이 함께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찰에서 도반으로의 생활 등등이 여러분의 소임이다. 세상을 밝혀나가고 깊은 지혜로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 토론법회로 지혜롭고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청년회원들은 대행 스님에게 올리는 글을 통해 보다 활발한 마음공부와 공심으로 사는 삶을 다짐했다. 법회 후 청년회원들은 선법가 합창과 함께 조별 담선을 통한 화합의 장을 가졌다.

노덕현 기자

제30회 불교미술대전 수상작 선정

대상작 없이 최우수상 유현정 수월관음도 등 2점

제30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 올해 대상작 없이 최우수상 2점을 선정했다.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위원장 오심)는 접수된 총 107점의 작품을 심사, 최우수상에 회화부문 ‘수월관음도(유현정作)’와 공예부문 ‘석가삼불도 목판과 탁본(한초作)’을 선정했다. 우수상에는 ‘운흥사 괘불(이윤경作)’과 ‘수월관음상(이용희作)’, ‘양출된인경은제도금금강경(절첩본형식, 김정호作)’이 선정됐다. 운영위는 또한 장려상 6점, 특선 6점, 입선 25점을 선정했다.



제30회 불교미술대전 최우수상에 선정된 회화부문 수월관음도(유현정作).

심사위원장을 맡은 손연칠 동국대 명예교수는 심사평을 통해 “올해 대부분의 작품들은 과거의 전통적 기법을 재현하거나 표피적 형식의 답습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많았다. 시대적 정신이 반영된 새로운 창의적 작품은 너무나 적었다”고 아쉬움을 표한 뒤 “불교미술이라는 제한적 환경에서 시대적 정신을 요구한다는 게 무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공모전의 분명한 성격을 뚜렷이 하고, 창의적 정신이 투철한 신진작가를 발굴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교미술대전 시상식은 12월 1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날부터 2주간 수상작품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된다. 윤호섭 기자

